

철강/비철금속

Analyst 박혜민
02. 3779-8967
hmpark@ebestsec.co.kr

철강/비철금속

애플워치가 금 시장의 활력소가 될 수 있을까

Neutral

실제 실물수요 증대 효과는 미미

이번 Apple이 출시한 금(Gold)이 적용된 애플워치 에디션에 대해서는 그 판매량을 전망하기가 쉽지 않다. 전체 애플워치 판매량의 5%가 금(Gold)이 적용된 애플워치 에디션이라고 가정할 경우 2014년 금 수요 대비 최대 2%의 금 수요 증가가 기대된다. 하지만 금 가격이 실물수급 보다는 매크로 환경이나 투기세력의 움직임에 의해 결정되어왔던 점을 감안하면 금 가격의 상승건인 보다는 IT부문에서의 실물수요 증가가 금 가격 하단을 지지해줄 것으로 기대된다.

금 투입량 최대 가정에도 전체 금 수요 대비 2% 미만

현지 시각으로 지난 3월 9일 Apple은 애플워치 및 레디나 맥북에어 등 신제품을 발표했다. 애플워치의 올해 판매량은 1,500만대~2,000만대 수준으로 전망되나, 대당 천만원을 훌쩍 뛰어넘는 금(Gold)을 적용한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량을 전망하기가 쉽지 않다. 한편 시계 1대당 금 투입량 추정에 대해서도 대당 50g~70g까지 정확한 수치는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다.

금을 적용한 애플워치 에디션의 판매는 전체 애플워치 판매량 가운데 5%인 75만톤을, 시계 1대당 금 50g이 투입된다고 가정할 경우 금 소요량은 38톤으로 2014년 전체 금 수요(3,924톤) 가운데 1%를 차지한다. 애플워치 에디션이 100만대 판매되며, 시계 1대당 금 70g이 투입된다고 가정할 경우에도 전 세계 금 수요의 2%가 채 되지 않는다.

금 가격 하단 지지요인으로 작용할 것

금 가격에 대해서는 6월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추가하락이 불가피하지만, 인도 등 주요국의 저가 실물매수가 금 가격의 하단을 지지해 줄 것이라고 당사 Commodity Analyst는 밝힌 바 있다.

금 가격은 실제 수요와 공급 보다는 달러화의 움직임 등 매크로 변수와 투기세력에 의해 움직여 왔던 점을 감안하면 금 가격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하기는 힘들다. 다만 향후 다른 전자기기로의 적용 확대와 타사 제품으로의 적용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. 전자기기에서의 금 적용 가능성을 열어주면서 향후 IT 부문에서 금 수요 증가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귀금속 수요와 함께 금 가격 하단의 지지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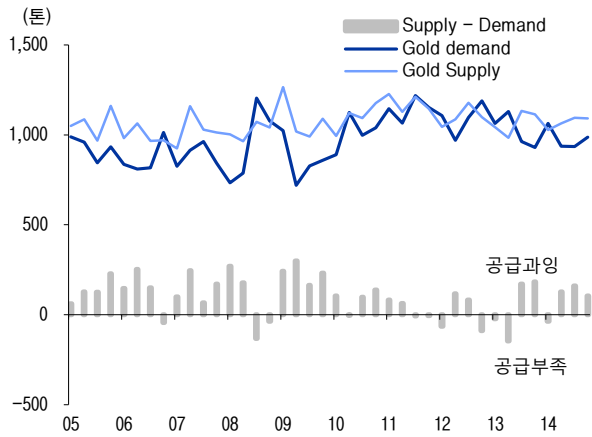
표1 금(Gold)이 적용된 애플워치 에디션 판매량 별 금 소요량 추정

시계 1개당 금 투입량(g)	판매량(만대)	금 소요량(톤)	2014년 금 수요 대비
50	75	38	1.0%
50	100	50	1.3%
60	75	45	1.1%
60	100	60	1.5%
70	75	53	1.3%
70	100	70	1.8%

자료: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본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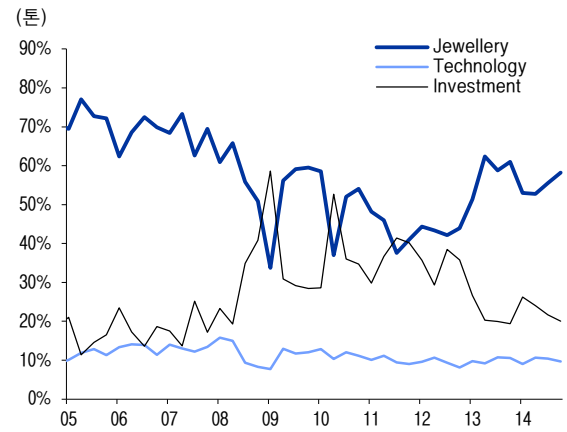
주: 애플워치 에디션 판매량은 애플워치 전체 판매량의 5% 가정

그림1 전 세계 금 수급



자료: WGC,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본부

그림2 금 수요처별 비중 - 귀금속 비중 상승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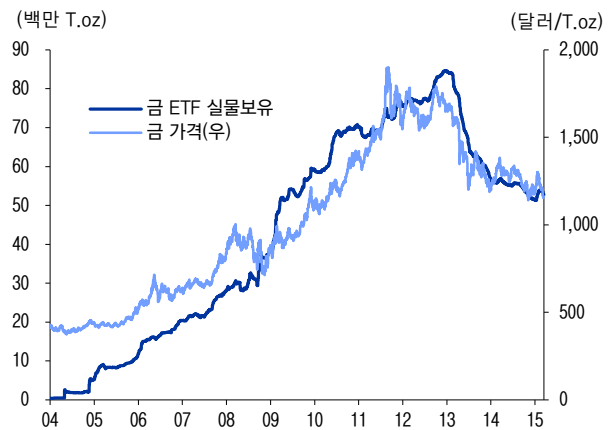
자료: WGC,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본부

그림3 달러인덱스는 100을 상회



자료: Bloomberg,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본부

그림4 ETF 보유물량 출하는 안정세



자료: Bloomberg,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본부

Compliance Notice

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(작성자: 박혜민)

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

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, 배포, 전송, 변형될 수 없습니다..

- 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-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.

투자등급 및 적용 기준

구분	투자등급 guide line (투자기간 6~12개월)	투자등급	적용기준 (향후 12개월)	비고
Sector (업종)	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 투자등급 3 단계	Overweight (비중확대) Neutral (중립) Underweight (비중축소)		
Company (기업)	절대수익률 기준 투자등급 3 단계	Buy (매수) Hold (보유) Sell (매도) N.R. (Not Rated)	20% 이상 기대 -20% ~ 20% 기대 -20% 이하 기대 등급보류	2015 년 2 월 2 일부터 당사 투자등급이 기존 4 단계 (Strong Buy / Buy / Marketperform / Sell)에서 3 단계 (Buy / Hold / Sell)로 변경